

대학생의 인터넷 정보윤리 준수 실태 측정과 분석*

Measurement and Analysis of the Internet Ethics Observance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in Korea

장혜란 (Hye Rhan Chang)**

목 차

- | | |
|-----------------|------------------|
| 1. 서론 | 4.2 정보예절 인식 분석 |
| 2. 선행연구 | 4.3 정보윤리 규범 분석 |
| 3. 연구 방법 | 4.4 온라인 신뢰 분석 |
| 4. 데이터 분석 결과 | 4.5 정보윤리 교육경험 분석 |
| 4.1 응답자의 개인적 배경 | 5. 결론 및 제언 |

초 록

우리나라의 정보화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사회 전 영역에서 인터넷 이용이 일상화되었으나 매체적 특성으로 인한 역기능의 폐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본 연구는 온라인 문화를 주도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N=830) 정보윤리준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책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보예절 인식, 정보규범 실태, 온라인신뢰 수준을 측정하고 분석하였으며, 개인적 배경과 관련 교육경험 등의 변인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였다. 응답자들의 정보예절 인식 수준은 낮은 편이며, 6가지 범주의 정보규범에서 모두 일탈 정도가 크고, 온라인신뢰 수준은 일반대중보다 낮다. 정보예절 인식 수준은 성별과 학년에 따라, 정보규범 수준은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교육경험은 정보윤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윤리 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use of the Internet is spread over all areas of our lives. However, its features raised serious social issues due to unethical behavior. To understand the level of Internet ethics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a survey questionnaire of 31 questions regarding netiquette awareness, ethical norms, information credibility, and personal background is devised: data was collected from 830 students. Descriptive analysis shows low level of netiquette awareness, considerable deviation from six categories of ethical norms and problems of network information credibility. Results of statistical testing show gender and grade level as factors affecting Internet ethics. However,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Internet ethics depending on related education experience. Based on the results, recommendations to promote Internet ethics are suggested.

키워드: 대학생, 인터넷 정보윤리, 정보예절, 정보규범, 온라인신뢰, 개인적 배경
Undergraduate Students, Internet Information Ethics, Netiquette Awareness,
Ethical Norms, Online Credibility, Personal Background

* 본 연구는 2011년도 상명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상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chrhan@smu.ac.kr)

논문접수일자: 2013년 1월 15일 최초심사일자: 2013년 1월 23일 게재확정일자: 2013년 2월 14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1): 327-347, 2013. [http://dx.doi.org/10.4275/KSLIS.2013.47.1.327]

1. 서론

사회 전반에 걸친 컴퓨터와 정보통신의 활용은 정보행동에 역동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개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문제를 해결하고 지식과 정보를 공유한다. 우리나라의 정보화는 인터넷이용률, 초고속인터넷 보급, 디지털 기회지수, 전자정부 평가 등 각종 통계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등 무선 인터넷의 발전으로 생활 전반에 걸친 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인의 삶과 사회 전 영역에서 인터넷이 일상화됨으로써 인터넷이 지니는 비대면성, 익명성, 신속전파성, 모호성 등의 매체 특성을 악용한 인터넷 역기능의 폐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게 되었다. 인터넷 악플, 사이버 명예훼손, 불법 다운로드, 개인정보 침해 등 매우 다양한 형태의 질서파괴 행위로 인해, 우리나라가 커다란 사회적 손실을 입고 있음은 모두 주지하는 사실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인터넷 실명제 도입, 가해자 처벌에 대한 법적 제재 강화, 보안이나 차단 기술적 보호수단 개발 등 방안이 강구되고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예방을 위한 정보윤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전문가가 진단한 인터넷 이슈 조사 결과를 보면 상위 10개 중에서 인터넷 윤리가 사회적 파급력을 나타내는 중요도에서는 5위, 신속한 대응을 요하는 시급성에서는 4위를 각각 차지하였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09).

정보윤리란, 정보를 다루는데 있어서 개인이나 사회구성원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이나 규범체계로서 그들의 행동과 태도의 옳고 그름,

선과 악, 그리고 윤리적인 것과 비윤리적인 것을 판단하게 해 주는 기준체계이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0). 인터넷 정보윤리의 문제들이 정책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중요한 관심 대상이 됨에 따라, 그동안 다수의 교육기관, 국가기관,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역기능 예방과 윤리의식 전환을 위해 다양한 교육 및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에서의 윤리가 문제시 될 때마다, 주된 쟁점이 되고 거론되는 계층이 청소년이므로, 대부분 초·중·고등학생과 학부모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한 활동과 연구에 치중되어 있다.

본 연구는 온라인 문화를 주도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인터넷 정보윤리 현황을 파악하고 증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터넷 정보윤리는 유아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지만,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는 계층일수록 그 중요성이 더 커진다. 또한 대학생들은 가까운 장래에 사회에 진출하여 인터넷윤리를 실천하고 이끌어야 할 중요한 위치에 있다. 정보문화의 규범적 차원은 인터넷 이용 과정에서 준수할 것으로 기대되는 예의 범절과 사회적 도리를 지키고 신뢰감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정보예절 인식, 정보규범 준수, 온라인신뢰 수준을 측정하여 실태를 분석하고, 개인적 배경과 교육경험 등 관련 요인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는 대학생의 인터넷 윤리 현황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건전한 디지털 문화 확산을 위한 윤리수준 향상에 기여할 유용한 정보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2. 선행 연구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수행된 대학생의 인터넷 이용과 관련된 연구는 대체로 정보의 접근, 탐색, 수집 등 활용능력에 집중되어 있고, 정보윤리에 관한 연구는 드문 편이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연구가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지만, 이경호(1998)는 일찍이 정보통신 윤리의 개념과 영역을 서술하고 사회적 윤리적 쟁점들을 유형별로 분석한 후, 선진국의 정보윤리 강령과 교육을 고찰하였으며, 윤리의식 확립 기반 조성을 위한 운동과 교육에 대해 논의하였다.

조찬식(2001a)은 네티켓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사이버 공간에서 나타나는 일탈행위에 대한 유형을 대역폭 낭비, 부적절한 언어사용, 정보도용, 부적절한 정보게재 등으로 나누어 조사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법적 장치의 강화, 기술적 장치의 강화, 통신윤리 교육실시 등을 제시하였다. 조찬식(2001b)은 또한 인터넷상에서의 부적절한 언어사용에 대해 문헌조사와 실태조사를 병행하여, 음운표기, 문법, 어휘의미로 나누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사고, 이용자추이, 네티켓과 정보교육 등을 논의하였다. 언어행위도 사회적 규범에 따라야 하며 체계적인 윤리교육을 통해 유지 발전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보다 최근에 이해영과 남태우(2010)는 설문조사를 통해 대학생들의 인용 및 표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서울소재 2개 4년제 대학 인문대학과 사회과학대 소속 2·3·4학년들은(N=198) 인용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로 인용지식을 측정한 결과 정답률은 31.82%로 낮았으며, 인용교육 경험과 정답률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22%가 표절에 대한 인식하고 있으며, 과제관련 표절경험은 10.6%~26.3%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당국에서 인용 및 표절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교육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문헌정보학 이외의 컴퓨터, 경영, 교육, 소비자행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학생들의 정보윤리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철현(2005)은 K교육대학교에 재학 중인 1-4학년 학생 중 학년별로 3, 4개 반을 임의로 선택하여(N=378) 인터넷이용 실태, 인터넷중독 성향, 정보통신 윤리의식에 대해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분석하였다. 정보통신 윤리의식 수준은 성별, 학교성적, 접속장소, 이용빈도, 인터넷중독 자각 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고, 정보통신 윤리의식 수준과 인터넷중독 성향은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희와 최무진(2006)은 대학생의 자아특성 및 인터넷 인지특성이 인터넷중독과 정보윤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4년제 대학의 3, 4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N=174)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자기존중감, 자기통제감, 인터넷 실제성, 인터넷 활용력 등의 인터넷중독 영향요인이 정보윤리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효정 등(2007)은 개인 특성 및 인터넷활용 특성이 인터넷중독 및 정보윤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4년제대학 3, 4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N=221) 분석한 결과, 자

기주장성, 대인관계성, 몰입성 등은 인터넷중독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자기효능감은 인터넷중독에 부적 영향을 미치며, 인터넷중독은 정보윤리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김태희와 강문설(2010)은 인터넷윤리 교과목을 수강하는 신입생을 대상으로(N=106) 인터넷 윤리의식에 대한 실태를 고찰하고, 실험 집단과 비교집단으로 나눈 후, 사례제시, 이야기 중심, 우회적 접근, 혼합적 사고로 구성된 윤리교육을 수강한 수강생들과, 전통적 윤리교육 수강생들의 교육효과를 분석하여 교육 효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구명하였다.

이유종(2010)은 정보통신공학 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N=288), 정보윤리에 대한 인식, 행동, 그리고 관련 변인에 대해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대학생들은 윤리적 문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비윤리적 행동 경향이 높고, 학년과 이용 시간 및 지출이 높을수록 그리고 이상주의 수준이 낮을수록, 비윤리적 행동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미경과 전향란(2010)은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부산·경남의 2개 대학 학생을(N=403) 두 가지 이용유형으로 나누어,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온라인 특성을 살펴보고, 정보통신 지식수준과 윤리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이용유형에 따라 정보통신 지식수준은 차이가 없었으나 윤리행동에 차이가 있었다. 재미추구형 집단이 비윤리적이고, 정보추구형 집단이 윤리적인 것

으로 나타났다.

박희숙(2012)은, 부산시내 4개 대학의 이공계 6개학과 대학생 122명을 대상으로, 17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배포하여 인터넷 악성댓글에 관한 윤리의식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악성댓글 작성경험자는 19%로 나타났고, 게시 빈도에 대하여는 3%는 매일 게시하고 16%는 가끔 게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70% 이상이 악성댓글이 사회적 문제라는 점에 공감하였다. 응답자의 57%는 인터넷윤리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었다. 특강이나 세미나 방식의 인터넷 윤리교육을 건의하였다.

위와 같이 문헌정보학 이외의 분야에서 산발적으로 대학생들의 인터넷 정보윤리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특정 교과목이나 전공에 제한하여 비교적 소수의 표본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측정도구에 차이가 있고, 일부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에 집중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대학생 일반의 인터넷 정보윤리에 대한 인식과 정보윤리 규범의 세부 내용별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3. 연구 방법

3.1 측정 도구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2008년부터 정보문화지수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2010년 조사에 사용한 설문 중에서, 정보윤리 부분을 발췌하고, 선행연구에서 정보윤리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식별된 개인적 배경과 교육경험에 관한 문항을 추가하여, 측정도구를 구축하였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전국 16개 광역시도의 만 6세 이상의 인터넷 이용자를 다단계층화집락추출하고 가구방문을 통한 1:1 개별면접으로 조사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이 대학생이므로, 응답자 자신이 설문지에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의 모든 응답자가 답변할 부분은, 정보예절 4문항, 정보규범 6문항, 온라인 신뢰 7문항 등 정보윤리에 대한 17개 문항과, 성별, 학년, 전공계열, 정보윤리 교

육경험 등 개인적 배경에 대한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 내용은 <표 1>과 같다. 그러나 정보규범 일탈 경험 여부에 따라, 행위별 빈도나 경로 등 하부 문항과 일탈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의식에 대한 문항이 제시되었고, 교육경험 여부에 따라 과목 및 시간 수에 대한 하부 문항이 제시되어, 일탈 및 교육 유경험자가 응답할 문항 수는, 경우에 따라 최대 15개가 추가될 수 있다. 질문 유형은 내용에 따라 5점 리커트 척도, 빈도를 직접 기입하는 단답형, 선택형 등이 있으며, 선택형에는 복수선택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표 1> 설문지 내용과 문항 구성

구 분	조사 항목	측정 요소	문항 수
인터넷 정보 윤리	정보 예절	욕설 사용 문제 인식	4
		비속어 사용 문제 인식	
		이용수칙 점검 인식	
		타인에 대한 예의 인식	
	정보 규범	신분 위조 경험	6
		타인 비방/인신공격 경험	
		무단콘텐츠 다운로드 경험	
		인터넷 자료 표절 경험	
		사실불명자료 유포 경험	
		개인정보 오남용 경험	
	온라인 신뢰	인터넷 포털 신뢰 수준	7
		공공기관 사이트 신뢰 수준	
		민간기업 사이트 신뢰 수준	
인터넷 사이트 전반 신뢰 수준			
인터넷 정보 제공자 신뢰 수준			
인터넷 이용자 전반 신뢰 수준			
개인적 배경	성 별	5	
	학 년		
	전공 계열		
	정보 윤리 교육 경험		중·고교 재학 중 교육경험
			대학 재학 중 교육경험
계			22

설문 초안을 작성한 후에 학년과 전공이 다른 12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구성과 문항 이해도 등을 점검하기 위해 사전테스트를 실시하였다. 테스트 결과에 따라 문항제시 순서를 변경하였으며, 하부 문항을 지나치지 않도록 화살표를 확대하여 강조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는 크론바하 알파값을 측정하면, 0.69~0.80의 범위에 있으며, 모두 0.6 이상으로 신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Hair et al. 1998).

3.2 데이터 수집 방법

설문조사는 2011학년도 2학기 현재 A대학교에 재학 중인 교양선택과목 수강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A대학교는 서울 소재 4년제 대학교로서 9개 대학 35개 전공을 개설하고 있으며, 전국의 102개 4년제 대학이 참여한 2012년도 언론사 주관 대학평가에서 60위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우리나라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나타내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간주하였다.

연구 대상의 확률 표집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또한 낮은 응답률을 고려할 때 적절치 못한 점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이 편의적 표집이라는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다양한 학생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교과목을 설정하고 표본의 수를 확대하고자 노력하였다.

설문조사는 2011년 11월 23일부터 12월 5일까지 13일간, 10개 교과목의 21개반을 대상으로, 담당교수의 협조를 얻어, 강의시간 중에 수행되었다. 중복 수강생을 제외하고 총 830명이

응답하였으며, 특별히 불성실한 답변이 없어 모두 분석에 사용하였다.

3.3 분석 방법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윈도우용 SPSS 12.3」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였다. 조사 내용에 대한 기본통계량과 빈도분석 등 기술적 통계를 중심으로 요약하였으며, 가능한 경우 한국정보화진흥원(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이하 NIA)의 조사결과 및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하였다. 성별, 학년, 전공계열, 정보윤리 교육경험 유무에 따른 정보윤리 수준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T-검증과 분산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4. 데이터 분석 결과

4.1 응답자의 개인적 배경

응답자 830명의 개인적 배경에 대한 기초통계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성별로는 여학생이 59.8%로 남학생 40.2%보다 높은 분포를 보였다. 학년별로는 1학년이 43.7%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2학년 24.9%, 3학년 17.0%, 4학년 14.3% 순으로 차지하였다. 계열별로는 사회과학이 46.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공학 16.4%, 인문과학 15.5%, 자연과학 11.8%, 예·체능 9.8%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응답자의 개인적 배경

구분		응답자수(명)	백분율(%)
성별	남	334	40.2
	여	496	59.8
학년	1학년	363	43.7
	2학년	207	24.9
	3학년	141	17.0
	4학년	119	14.3
전공	인문과학	129	15.5
	사회과학	386	46.5
	자연과학	98	11.8
	공학	136	16.4
	예·체능	81	9.8
계		830	100.0

4.2 정보예절 인식 분석

4.2.1 정보예절 인식 수준

정보예절은 인터넷에서 욕설, 비속어 등 부정적 언어사용에 대한 문제성 인식, 인터넷 이용시 이용수칙 점검습관, 타인에 대한 예의 바른 태도 등을 측정하였다. 응답자들의 정보예절에 대한 인식 수준을 5점 척도로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정보예절 문제에 대한 인식 수준은, 욕설사용에 대한 문제성 인식이 4.24로 가장 높았고, 비속어 사용은 4.05, 타인에 대한예절은 4.02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용수칙 점검에 대한 인식은 2.66으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에 응답한 비율을 합하면, 응답자의 81.9%가 욕설 사용에, 73.5%가 비속어 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선행 연구 결과를 보면, 박희숙(2012)의 연구에서는 70% 이상이 악성댓글이 사회적 문제라는 점에 공감하였으며, NIA조사(2011)에서는 86.7%가 욕설 사용을 82.0%가 비속어 사용을 문제로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19.1%만이 이용수칙을 잘 살펴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수치는 NIA조사(2011)의 37.5%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응답자들의 77.6%가 타인에 대한

〈표 3〉 인터넷 정보예절에 대한 인식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MEAN (SD)
욕설 사용은 문제가 있다	10(1.2)	13(1.6)	127(15.3)	299(36.0)	381(45.9)	4.24(0.85)
비속어 사용은 문제가 있다	11(1.3)	26(3.1)	183(22.0)	302(36.4)	308(37.1)	4.05(0.91)
이용수칙을 잘 살펴본다	87(10.5)	294(35.4)	290(34.9)	129(15.5)	30(3.6)	2.66(0.98)
다른 이용자들에게 예의를 갖춘다	6(0.7)	27(3.3)	153(18.4)	402(48.4)	242(29.2)	4.02(0.82)

〈표 4〉 개인적 배경에 따른 정보예절 차이 분석

구분		N	Mean	SD	t(F)	p
성별	남	334	3.67	0.69	-2.53*	0.012
	여	496	3.79	0.58		
학년	1학년	363	3.78	0.62	3.87**	0.0009
	2학년	207	3.76	0.59		
	3학년	141	3.58	0.63		
	4학년	119	3.78	0.67		
계열	인문과학	129	3.76	0.64	1.03	0.393
	사회과학	386	3.70	0.63		
	자연과학	98	3.78	0.57		
	공학	136	3.79	0.67		
	예·체능	81	3.81	0.06		

*p<.05, **p<.01

예의를 갖추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부분은 NIA 조사(2011)의 62.8%보다 높은 편이다. 응답자들의 정보예절 인식 수준을 타인에 대한 예의 부분을 제외하고 일반대중보다 대체로 낮으며, 이용 수칙 점검 부분이 특히 취약한 것을 알 수 있다.

4.2.2 개인적 배경과 정보예절 인식

응답자의 개인적 배경에 따른 정보예절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성별에 따른 정보예절 인식은, 여학생이(3.79) 남학생(3.67)보다 높았으며,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 = -2.53, p < .05$). 학년에 따른 정보예절에 대한 인식은, 1, 4학년 학생이 다른 학년보다 높고, 3학년이 낮으며, 학년에 따른 정보예절에 대한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 = 3.87, p < .01$). 전공계열에 따른 정보예절에 대한 인식은, 예·체능계열 학생이 가장 높고, 사회과학계열 학생은 다른 계열 학생보다 낮으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예절 문제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남녀 간에

차이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예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다. 남학생들은 인터넷 예절의 문제성에 대해 관용적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보예절에 대한 인식이 학년 간에도 차이가 있음이 입증되었으나, 학년의 고하에 따라 인식 수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4.3 정보윤리 규범 분석

4.3.1 정보윤리 규범 일탈 수준

최근 1년간 정보규범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신분위조, 타인비방이나 인신공격적 언어사용, 콘텐츠 무단 다운로드, 인터넷자료의 표절, 사실여부가 부정확한 정보의 유포, 타인의 개인정보 오남용 등 6가지의 일탈행위 경험 수준과 빈도 및 행위 내용을 조사하였다. 일탈행위의 경험 수준을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정보윤리 규범 일탈 경험에 대하여는 신분위조가 1.45로 가장 낮았으며, 다음으로 사실불명

〈표 5〉 인터넷 정보규범 일탈경험 수준

구분	전혀 없음	거의 없음	가끔	자주	매우 자주	MEAN(SD)
신분위조	566(68.2)	173(20.8)	78(9.4)	10(1.2)	3(0.4)	1.45(0.74)
타인비방/인신공격	419(50.5)	284(34.2)	102(12.3)	18(2.2)	7(0.8)	1.69(0.83)
무단콘텐츠 다운로드	110(13.3)	171(20.6)	304(36.6)	162(19.5)	83(10.0)	2.92(1.15)
인터넷자료 표절	179(21.6)	326(39.3)	231(27.8)	75(9.0)	19(2.3)	2.31(0.98)
사실불명자료 유포	496(59.8)	256(30.8)	64(7.7)	9(1.1)	5(0.6)	1.52(0.74)
개인정보 오·남용	456(54.9)	270(32.5)	80(9.6)	14(1.7)	10(1.2)	1.62(0.82)

자료 유포 1.52, 개인정보 오·남용 1.62, 타인 비방 1.69, 표절 2.31, 무단콘텐츠 다운로드 2.9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탈행동 경험에서 ‘가끔’, ‘자주’, ‘매우 자주’로 답한 응답자 비율을 합하면, 신분위조 11%, 타인비방/인신공격 15.3%, 무단 콘텐츠다운로드 66.1%, 인터넷자료 표절 39.1%, 사실불명자료 유포 9.4%, 개인정보 오남용 12.5%로 나타났다. NIA조사(2011) 결과를 보면, 이 비율이 신분위조 7.8%, 타인비방/인신공격 5.4%, 무단콘텐츠다운로드 29.5%, 인터넷자료 표절 11.4%, 사실불명자료 유포 2.4%, 개인정보오남용 3.2%로 나와 있다. NIA조사(2011)에서 연령별로 일탈 수준이 가장 높은 20대의 조사 결과를 보면, 신분위조 9.9%, 타인비방/인신공격 5.5%, 무단 콘텐츠 다운로드 49.5%, 인터넷자료 표절 22%, 사실불명자료 유포 3.6%, 개인정보

오남용 4.3%로 나와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보면, 악성 댓글 작성경험이 19%로 나타난 연구가 있다(박희숙 2012). 대학생들의 정보규범 일탈 수준이 매우 심각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위의 일탈경험 수준에서 3점 이상으로(‘가끔’ - ‘매우 자주’) 응답한 학생들에 대해 최근 1년 동안의 일탈행위 내용을 세부적으로 조사하여 분석한 것이다.

(1) 신분위조 행위 실태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이용하거나 신분위조 경험이 있는 응답자 91명에 대해 일탈 빈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신분위조를 1회 한 학생이 49.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3회 28.6%, 4~5회와 6회 이상이 각각 11.0% 순으로 나타났다.

〈표 6〉 최근 1년 간 신분위조 경험 빈도

구분	응답자수(명)	백분율(%)
1회	45	49.5
2~3회	26	28.6
4~5회	10	11.0
6회 이상	10	11.0
계	91	100.0

신분위조 행위의 용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웹 사이트 회원가입을 위해 신분 위조를 한 학생이 33.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물품구매 24.2%, 광고나 홍보성 이메일 발송 23.1%, 기타 19.8% 순으로 나타났다.

(2) 타인비방/인신공격언어 행위 실태

타인을 비방하거나 인신공격적 언어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127명에 대해 일탈 빈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8>과 같다. 타인비방을 1회 한 학생이 50.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

로 2~4회 18.9%, 20회 이상 14.3%, 10~19회 12.6%, 5~9회 3.9% 순으로 나타났다. 20회 이상 집중적으로 타인을 비방하는 대학생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타인을 비방하거나 인신공격적 언어를 사용한 학생들의 경로를 조사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게시판을 통해서 일탈행위를 한 학생이 32.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댓글 26.0%, 기타 14.2%, 블로그 11.8%, 이메일 10.2%, 채팅 5.5% 순으로 나타났다. 게시판과 댓글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임을 알 수 있다.

<표 7> 신분위조 행위의 용도

구분	응답자수(명)	백분율(%)
웹 사이트 회원가입	30	33.0
물품구매	22	24.2
광고나 홍보성 이메일 발송	21	23.1
기타	18	19.8
계	91	100.0

<표 8> 최근 1년간 타인비방/인신공격 경험 빈도

구분	응답자수(명)	백분율(%)
1회	64	50.4
2~4회	24	18.9
5~9회	5	3.9
10~19회	16	12.6
20회 이상	18	14.2
계	127	100.0

<표 9> 타인비방/인신공격 경로

구분	응답자수(명)	백분율(%)
댓글	33	26.0
게시판	41	32.3
블로그	15	11.8
채팅	7	5.5
이메일	13	10.2
기타	18	14.2
계	127	100.0

타인비방을 하거나 인신공격적 언어를 사용한 동기를 조사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비방을 받은 후 되갚기 위해 타인비방을 하거나 인신공격적 언어를 사용한 학생이 29.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해서 23.6%, 나와 의견이 달라서 18.9%, 개인적으로 싫어해서와 기타가 각각 9.4%,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8.7% 순으로 나타났다.

타인비방 경험자를 대상으로 주로 비방하는 대상을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가 <표 11>에 나타나 있다. 학생들은 자신에게 먼저 비방한 사람에게 한 학생이 41.5%로 가장 많아 인터넷상에서 타인비방의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비도덕적/파렴치한 행동으로 화제가 된 일반인 18.3%, 친구나 아는 사람 14.8%, 정치인 12.7%,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

수와 기타 6.3% 순으로 나타났다.

(3) 콘텐츠 무단 다운로드 실태

무단으로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549명에 대해 일탈행위의 빈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10회 이하 받은 학생이 49.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1~30회 22.4%, 31~50회 11.8%, 101회 이상 10.2%, 51~100회 5.8%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당수의 대학생들이 최근 1년 간 무단 콘텐츠를 30회 이상 다운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응답자들이 무단 다운로드한 콘텐츠의 내용을 조사하였다. 복수응답한 결과를 분석한 <표 13>을 보면, 영화/드라마를 무단 다운받은 학생이 45.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음악 28.9%, 사진/그림 10.3%, S/W 프로그램 10.0%, UCC

<표 10> 타인비방/인신공격 동기

구분	응답자수(명)	백분율(%)
비방을 받은 후 되갚기 위해	38	29.9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해서	30	23.6
나와 의견이 달라서	24	18.9
개인적으로 싫어해서	12	9.4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11	8.7
기타	12	9.4
계	127	100.0

<표 11> 타인비방 대상

구분	응답 건수	백분율(%)
나를 먼저 비방한 사람	59	41.5
비도덕적/파렴치 행동을 한 일반인	26	18.3
친구나 아는 사람	21	14.8
정치인	18	12.7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	9	6.3
기타	9	6.3
계	142	100.0

(복수응답)

〈표 12〉 최근 1년 간 무단 콘텐츠 다운 경험 빈도

구분	응답자수(명)	백분율(%)
10회 이하	273	49.7
11~30회	123	22.4
31~50회	65	11.8
51~100회	32	5.8
101회 이상	56	10.2
계	549	100.0

〈표 13〉 무단 다운로드한 콘텐츠의 내용

구분	응답건수	백분율(%)
영화/드라마	420	45.8
음악	265	28.9
사진/그림	95	10.3
S/W 프로그램	92	10.0
UCC동영상	25	2.7
기타	21	2.3
계	918	100.0

(복수응답)

동영상 2.7%, 기타 2.3%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무단 다운로드한 경로를 조사하였다. 복수응답 결과를 분석한 〈표 14〉를 보면, 무단 다운을 파일공유사이트(P2P)를 통해 받은 학생이 51.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블로그, 미니홈피, 페이스북 등 개인홈페이지 17.5%, 인터넷 포털 17.1%, 카페나 커뮤니티 사이트

10.2%, 기타 3.8% 순으로 나타났다. 파일공유 사이트(P2P)가 지배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경로임을 알 수 있다.

(4) 인터넷자료 표절 행위 실태

인터넷자료 표절 경험자 325명에 대해 표절 빈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15〉와 같다. 최근 1년

〈표 14〉 무단 다운로드 경로

구분	응답건수	백분율(%)
파일공유사이트(P2P)	389	51.5
블로그, 미니홈피, 페이스북 등 개인홈페이지	132	17.5
인터넷 포털	129	17.1
카페나 커뮤니티 사이트	77	10.2
기타	29	3.8
계	756	100.0

(복수응답)

〈표 15〉 최근 1년간 표절 경험 빈도

구분	응답자수(명)	백분율(%)
1회	130	40.0
2~3회	59	18.2
4~5회	46	14.2
6~9회	8	2.5
10~19회	59	18.2
20회 이상	23	7.1
계	325	100.0

간 표절을 1회 한 학생이 40.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3회와 10~19회 18.2%, 4~5회 14.2%, 20회 이상 7.1%, 6~9회 2.5% 순으로 나타났다. 10회 이상 표절된 학생이 25.3%에 이르러, 집중적으로 표절행위를 하는 학생들이 다수 있음을 알 수 있다.

(5) 사실불명자료 유포 행위 실태

사실이 확인이 안 된 정보 유포 행위 경험자 78명을 대상으로 사실불명자료 유포 빈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16〉과 같다. 1회 한 학생

이 48.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4~5회 19.2%, 2~3회 17.9%, 6회 이상 14.1% 순으로 나타났다.

(6) 개인정보 오·남용 행위 실태

인터넷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오·남용한 경험자 104명에 대해서 일탈행동의 빈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17〉과 같다. 최근 1년간 타인의 개인정보 오·남용을 1회 한 학생이 58.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4회 22.1%, 5~9회와 10회 이상 9.6% 순으로 나타났다.

〈표 16〉 최근 1년간 사실불명자료 유포 경험 빈도

구분	응답자수(명)	백분율(%)
1회	38	48.7
2~3회	14	17.9
4~5회	15	19.2
6회 이상	11	14.1
계	78	100.0

〈표 17〉 최근 1년간 개인정보 오·남용 경험 빈도

구분	응답자수(명)	백분율(%)
1회	61	58.7
2~4회	23	22.1
5~9회	10	9.6
10회 이상	10	9.6
계	104	100.0

4.3.2 개인적 배경과 정보규범 준수

응답자의 개인적 배경에 따른 정보규범 준수 수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18>과 같다.

분석을 위하여, <표 5>에 나타난 5점 척도의 정보규범 일탈경험 수준을 역채점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규범준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성별에 따른 정보규범 준수 수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규범 준수 수준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 = -3.06, p < .01$). 학년에 따른 정보규범 준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정보규범 수준은 4학년이 가장 높고, 3학년 학생은 다른 학년보다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 정보규범 수준의 전공계열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인문과학계열 학생의 준수 수준이 가장 높고, 사회과학계열 학생은 다른 계열 학생보다 낮았으나 계열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규범 준수에 있어서도, 앞서 분석한 정

보예절 인식과 마찬가지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입증되었으며,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인터넷 상에서 비윤리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활이나 대학교육 경험이 정보규범 준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4.3.3 일탈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의식

정보규범 일탈행위 유경험자를 대상으로(644명), 해당 행동이 불법이라거나 향후 민사나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문항을 제시하여 대학생들의 의식을 살펴보았다. <표 19>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민사나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인식하는 학생이 51.2%, 그렇지 않다고 인식하는 학생 48.8%로 나타났다. 일탈행위자의 51.2%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이 의도적 일탈자로 파악된다. NIA조사(2011)에서는 일탈경험자의 42.8%가 의도적 일탈자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의도적 일탈 수준이 일반대중보다

<표 18> 개인적 배경에 따른 정보규범 준수 차이 분석

구분		N	Mean	SD	t(F)	p
성별	남	334	4.01	0.57	-3.06**	0.002
	여	496	4.13	0.49		
학년	1학년	363	4.11	0.53	2.30	0.076
	2학년	207	4.05	0.51		
	3학년	141	4.00	0.53		
	4학년	119	4.14	0.53		
계열	인문과학	129	4.15	0.48	1.07	0.370
	사회과학	386	4.05	0.54		
	자연과학	98	4.08	0.54		
	공학	136	4.10	0.50		
	예·체능	81	4.10	0.58		

* $p < .05$, ** $p < .01$

〈표 19〉 일탈행위의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인식

구분	빈도(명)	백분율(%)
그렇다	330	51.2
아니다	314	48.8
계	644	100.0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4.4 온라인 신뢰 분석

4.4.1 온라인에 대한 신뢰 수준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방문하게 되는 각종 웹사이트, 접하는 정보콘텐츠, 또는 웹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정보제공자 등에 대한 신뢰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공공과 민간 사이트, 정보와 정보제공자, 이용자와 사이트 전반에 관한 신뢰도를 조사하였다. 응답자들의 온라인에 대한 신뢰 수준을 5점 만점 척도로 측정된 결과는 〈표 20〉과 같다.

전체 응답자 중 신뢰한다고(‘그렇다’와 ‘매우 그렇다’)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69.8%가 공공기관 사이트를 신뢰하고, 43.7%가 인터넷 포털

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부분에 대하여는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5%~27%의 범위로 매우 낮은 편이다. 또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민간기업 운영사이트, 인터넷 사이트 전반, 인터넷에서 정보나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람이나 단체, 인터넷이용자 전반, 인터넷상의 정보나 콘텐츠 부문에서 모두 ‘보통이다’에 응답하여, 신뢰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보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5점 척도로 측정된 전체 평균은 3.09로, NIA 조사(2000)의 평균 3.11보다 약간 낮다. 온라인에 대한 신뢰가 ‘보통’ 수준으로, 일반대중의 신뢰 수준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온라인에 대한 신뢰 중에는 ‘공공기관 사이트’에 대한 것이 3.8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인터넷 포털’ 3.41, ‘민간기업 운영사이트’ 3.10, ‘인터넷

〈표 20〉 온라인 신뢰 수준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MEAN (SD)
인터넷 포털	9(1.1)	47(5.7)	412(49.6)	320(38.6)	42(5.1)	3.41(0.72)
공공기관 사이트	12(1.4)	32(3.9)	207(24.9)	405(48.8)	174(21.0)	3.84(0.85)
민간기업 운영사이트	20(2.4)	113(13.6)	473(57.0)	208(25.1)	16(1.9)	3.10(0.74)
인터넷 사이트 전반	31(3.7)	178(21.4)	512(61.7)	103(12.4)	6(0.7)	2.85(0.70)
인터넷에서 정보나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람이나 단체	28(3.4)	159(19.2)	523(63.0)	109(13.1)	11(1.3)	2.90(0.71)
인터넷 이용자 전반	62(7.5)	251(30.2)	455(54.8)	57(6.9)	5(0.6)	2.63(0.75)
인터넷상의 정보나 콘텐츠	33(4.0)	145(17.5)	545(65.7)	101(12.2)	6(0.7)	2.88(0.69)
전체 MEAN(SD)	3.09(0.50)					

〈표 21〉 개인적 배경에 따른 온라인 신뢰 차이 분석

구분		N	Mean	SD	t(F)	p
성별	남	334	3.05	0.53	-1.69	0.091
	여	496	3.11	0.48		
학년	1학년	363	3.11	0.46	2.14	0.093
	2학년	207	3.12	0.51		
	3학년	141	2.99	0.52		
	4학년	119	3.09	0.56		
계열	인문과학	129	3.06	0.52	1.05	0.380
	사회과학	386	3.10	0.47		
	자연과학	98	3.01	0.53		
	공학	136	3.12	0.44		
	예·체능	81	3.13	0.62		

에서 정보나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람이나 단체' 2.90 순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 이용자 전반'이 2.63으로 가장 낮다.

4.4.2 개인적 배경과 온라인 신뢰

응답자들의 개인적 배경에 따른 온라인에 대한 신뢰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21〉과 같다.

성별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온라인에 대한 신뢰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 학년별로는 2학년 학생이 온라인에 대한 신뢰가 가장 높고, 3학년 학생은 다른 학년보다 온라인에 대한 신뢰가 낮으나, 학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다. 계열별로는 예·체능 계열 학생이 온라인에 대한 신뢰가 가장 높고, 자연과학계열 학생은 다른 계열 학생보다 온라인에 대한 신뢰가 낮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응답자들의 개인적 배경에 따라 온라인에 대한 신뢰에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대학생들의 온라인 정보, 사이트, 정보제공자에 대한 신뢰 수준은 전반적으로 중간수준의 범위에 있으며(2.99 - 3.13), 성

별, 학년, 전공계열 등 개인적 배경에 따라 차이가 없다.

4.5 정보윤리 교육경험 분석

4.5.1 정보윤리 교육경험 실태

응답자들이 중, 고등학교 재학 중에 인터넷 정보윤리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정보윤리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학생이 90.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단지 9.8%의 학생들만이 정보윤리 교육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여 년에 걸쳐, 학교 국가 기관, 시민단체에서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인터넷문화를 교육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시도되었으나, 그 효과는 아직 미미한 것을 알 수 있다.

응답자들이 대학의 정규과목에서 정보윤리를 교육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는 〈표 22〉와 같다. 정보윤리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이 58.3%로 그렇지 않은 학생 41.7%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대학 정규과목에서 정보윤리 교육경험

구분	있다	없다	계
응답자수(%)	484(58.3)	346(41.7)	830(100.0)

〈표 23〉 정보윤리 교육경험에 따른 정보윤리 차이 분석

구분	있다 (N=484)		없다 (N=346)		계 (N=830)		t	p
	M	SD	M	SD	M	SD		
정보예절	3.77	0.59	3.70	0.67	3.74	0.63	1.57	0.117
정보규범	4.08	0.52	4.09	0.54	4.08	0.53	-0.31	0.754
온라인신뢰	3.11	0.43	3.06	0.58	3.09	0.51	1.31	0.192

교육 경험이 있는 484명에 대하여 수강 교과목 중 정보윤리가 포함된 과목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총 42종의 교과목 명칭이 열거되었다. 해당 교과목 수강시간 중에 정보윤리 부분에 할애된 시간 수에 대해 조사한 결과, 2시간이 47.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4시간 27.5%, 1시간 12.2%, 5시간 이상 8.3%, 3시간 4.8% 순으로 나타나, 교과목에 따라 편차가 매우 심하며, 교육 경험자의 60%이상이 해당 교과목에서 2시간 이하의 정보윤리 교육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응답자들이 대학에서 정규과목 이외의 정보윤리 교육(예, 특강, 세미나, 워크숍 등)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99.0%의 학생들이 비공식 정보윤리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5.2 교육경험과 정보윤리 수준

응답자들의 대학 재학중 인터넷 정보윤리교육 경험 여부에 따른 정보윤리 수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23〉과 같다.

정보예절은 대학에서 정보윤리 교육경험이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높으나 통

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정보규범은 대학에서 정보윤리 교육경험이 없는 학생과 교육경험이 있는 학생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온라인신뢰는 정보윤리 교육경험이 있는 학생이 교육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 전체적으로 대학에서 정보윤리 교육경험 여부에 따라 인터넷 정보윤리에 차이가 없음이 입증되었다.

응답자들의 대학재학 중 정보윤리 교육경험은 정보예절 인식, 정보규범 준수, 온라인 신뢰 등 모든 부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보윤리 교육은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온라인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대학생의 인터넷 정보윤리 현황을 이해하기 위한 것으로, 2011년 11월 23일부터 12월 5일까지 A대학교의 10개 교양선택과목 21개반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데이터를 수

집하였으며(N=830), 정보예절 인식, 정보규범 준수, 온라인신뢰 등 정보윤리 실태를 조사하여 분석하고, 학생들의 개인적 배경 및 관련 교육 경험에 따른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응답자들의 정보예절 인식 수준은, 타인에 대한 예의를 제외하고, 모든 부분에서 낮은 편이며, 특히 욕설과 비속어 사용 및 이용수칙점검 부분에서 일반대중보다 크게 낮다. 정보예절 인식 수준은 성별과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규범 준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신분위조, 타인비방/인신공격적 언어사용, 콘텐츠 무단 다운로드, 표절, 사실불명자료 유포, 개인정보 오남용 등 6가지 범주에서 경험수준과 행위 내용을 분석한 결과, 6가지 모두 일탈 정도가 현격히 높아, 대학생들의 정보규범 준수 실태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정보규범 수준 또한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고, 일탈 경험자들의 50% 이상이 법적 책임을 알고도 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의도적 일탈자로 나타났다. 인터넷 사이트와 콘텐츠 및 정보제공자에 대한 신뢰 수준을 7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측정한 결과, 응답자들의 신뢰 수준이 일반대중의 신뢰 수준보다 낮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58.3%가 대학재학 중 다양한 교과목을 통해 정보윤리를 교육 받은 경험이 있으나, 해당 교과목에서 실제로 정보윤리를 다룬 시간은 미미한 수준이며, 교육 경험에 따른 정보윤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우리 사회는 정보통신 인프라와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 되었으나, 비윤리적 행동으로 인한 질서파괴 행위가 증가됨에 따라 정보윤리 확립

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인터넷 이용자 중에서도, 소위 디지털원어민으로 불리우며 온라인 문화를 주도하는 대학생들의 경우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하며, 대학생들의 인터넷윤리 수준을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인터넷 역기능을 경감시키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기술적 대책이 강구되고 있지만, 이것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단시일 내에 해결되기 어렵다. 또한 다양한 기술개발에 따른 새로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 방법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인터넷의 역기능을 예방하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는 인터넷 윤리교육을 강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보윤리 교육의 목적은 정보사회를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이 갖추어야 할 올바른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다. 이 교육은 원칙적으로 청소년으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계속과정이어야 하나, 기본교육 과정의 최종단계에 있는 대학생들의 윤리 준수 수준이 지극히 낮고 교육경험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고등교육의 일환으로 재학시에 교육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보활용능력이 디지털시대의 생존력이 됨에 따라, 대학에서는 그동안 도서관을 중심으로 정보리터러시 프로그램을 수행하거나 또는 다양한 명칭의 교과목을 개발하여 학생들을 교육하였다. 대학의 정보리터러시 교육프로그램 설계에 기초로 이용되고 있는 미국 American Library Association(2000)의 ACRL모형은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보윤리는 그 중의 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처한 현황과 대학생의 이탈수준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향후 대학생을 위한 인터넷 정보윤리 교육은, 정보리터러시 프로그램의 한 부분이 아니라, 단일 프로그램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윤리 교육은 문제의 본질과 피해 및 처벌에 관한 지식을 알게 하는 인지 영역, 도덕적 선악에 대한 마음과 태도를 강조하여 느끼게 하는 정의 영역, 그리고 직접 경험을 통해 실천하는 행동 영역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일련의 사건 사실이나 원리를 제시하고 문제를 탐구하며 관계를 설명하는 강의는 기본 지식을 인지시키기 위해 필요하며 짧은 시간에 학생들에게 많은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인지된 내용을 정의 영역과 행동 영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는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기존의 보유정보와 통합시키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토론

이 필수적이다. 토론은 강의보다 풍부한 정보자원과 교수의 계획 및 지도능력이 필요하며, 학생들은 읽기와 사고를 통한 학습의 준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토론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과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질적으로 우수한 정보윤리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현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며, 여러 가지 문제는 각 대학의 환경에 따라 다를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대학생들의 윤리 인식과 준수실태는 성별에 약간 차이는 있으나, 학년이나 전공 등 개인적 배경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고, 기존 교육경험에 의한 차이도 드러나지 않았다. 따라서 교육시기 및 전공과 관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교과목이 개발되어야 하며, 교육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는 학점이 주어지는 정규과목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구분희, 최무진. 2006. 인터넷 중독과 정보윤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자아특성 및 인터넷 인지 특성을 중심으로. 『정보시스템 연구』, 15(3): 233-252.
- [2] 김태희, 강문설. 2010. 인터넷 윤리의식의 실태 분석 및 교육효과 측정.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논문지』, 14(5): 1257-1269.
- [3] 김효정 등. 2007. 개인 특성 및 인터넷 활용 특성이 인터넷 중독 및 정보 윤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영교육논총』, (48): 101-124.
- [4] 박희숙. 2012. 인터넷윤리와 악성댓글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에 관한 조사.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16(9): 2043-2049.
- [5] 유지은, 이영욱. 2005. 대학생의 정보통신 윤리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10(6): 309-320.
- [6] 이경호. 1998.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정보윤리의식의 확립방안. 『도서관학논집』, 28: 385-413.

- [7] 이유중. 2010. 정보통신공학 전공 대학생의 정보통신 윤리행동과 관련 변수. 『공학교육연구』, 13(3): 68-76.
- [8] 이철현. 2005. 교내 학생들의 인터넷 이용 실태 및 중독 성향과 정보통신 윤리의식의 관계.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논총』, 25(2): 115-145.
- [9] 이해영, 남태우. 2010. 대학생들의 인용 및 표절에 관한 인식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3): 175-198.
- [10] 제미경, 진향란. 2010. 대학생소비자의 인터넷 이용행태와 정보통신윤리. 『소비문화연구』, 13(2): 45-60.
- [11] 조찬식. 2001a. 사이버공간에서의 네티켓과 일탈행위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18(2): 187-202.
- [12] 조찬식. 2001b. 인터넷 상에서의 언어사용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5(4): 177-196.
- [13]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0. 『정보통신윤리 지도 안내서』. 서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14] 한국정보화진흥원. 2009. 인터넷 이슈 현안과 전망. 『IT 정책연구시리즈』, 15호.
- [15]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2010년 정보문화실태조사』. 서울: 한국정보화진흥원.
- [16]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00. 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y Standards for Higher Education. [online]. [cited 2012.11].
<<http://www.ala.org/acrl/standards/informationliteracycompetency>>.
- [17] Hair, J. G. et al. 1998. *Multivariate Data Analysis with Readings*. 4th ed. New York: Prentice-Hall.
- [18] Moor, J. H. 1985. "What is computer ethic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1(3): 99-125.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Goo, Bon-Hee, & Choi, Moo-Jin. 2006. "A study about the influence of self-characteristics and personal relationship characteristics of the Internet addiction & internet ethics." *The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15(3): 233-252.
- [2] Kim, Tae-Hee, & Kang, Moon-Seol. 2010. "Measuring the effectiveness of teaching and actual condition of internet ethics of undergraduate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Maritime Information & Communication Sciences*, 14(5): 1257-1269.
- [3] Kim, Hyo-Jung, et al. 2007. "A Study about the influence of personal-characteristics and characteristics of internet use on the internet addiction and information ethics." *Management Education Journal*, (48): 101-124.

- [4] Park, Jee-Sook. 2012. "A Survey on aware of university students for internet ethics and malicious replay."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16(9): 2043-2049.
- [5] Yoo, Ji-Eun, & Lee, Young-Wook. 2005. "A study on the method for ethics educa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of the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10(6): 309-320.
- [6] Lee, Kyung-Ho. 1998. "A Plan for the establishment of information ethics in relation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8: 385-413.
- [7] Lee, Yoo Jong. 2010. "Factors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thics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13(3): 68-76.
- [8] Lee, Chul-Hyun. 2005. "Relationship among the campus students, internet use, internet addiction tendenc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thics." *The Journal of Education*, 25(2): 115-145.
- [9] Rhee, Hey-Young, & Nam, Tae-Woo. 2010. "A study on undergraduates, citation use and plagiarism awarenes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4(3): 175-198.
- [10] Jae, Mie-Kyung, & Jeon, Hyang-Ran. 2010. "A study on the type of using internet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thics by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Consumption Culture Association*, 13(2): 45-60.
- [11] Cho, Chan-Sik. 2001a. "A study on netiquette and inappropriate behavior in cyberspa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18(2): 187-202.
- [12] Cho, Chan-Sik. 2001b. "A study on the use of language in interne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5(4): 177-196.
- [13] Korea Education &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2000. *Information Ethics Instruction Guide*. Seoul: KERIS.
- [14]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09. "Internet Issues, Present & Future." *IT Policy Research Series*, (15).
- [15]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1. *Information Culture Survey 2010*. Seoul: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